

2019년 2월 12일

KIWOOOM DAILY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서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미 증시, 미-중 무역협상을 기다리며 관망 백악관 관리 “3월 1일 데드라인 연기 될 수 있다”

무역협상 낙관론 Vs. 비관론

미 증시는 미-중 무역협상 결과를 기다리며 보험권 등락을 보임. 한편 백악관에서 3월 중 미-중 정상회담 가능성을 제기하는 등 무역협상 낙관론이 유입되기도 했으나, 여전히 불확실성이 이어져 장 후반 매물 출회되기도 하는 등 보험권 혼조 마감(다우 -0.21%, 나스닥 +0.13%, S&P500 +0.07%, 러셀 2000 +0.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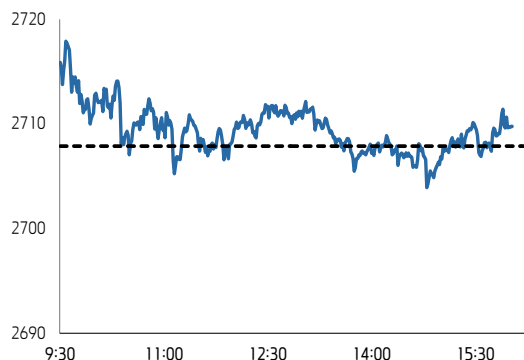
미-중 차관급 무역협상이 시작되었으나, 시장에서는 비관론과 낙관론이 팽팽하게 이어지는 경향을 보임. 그런 가운데 미 증시는 변화 요인이 많지 않아 개별 기업들의 변화 요인에 따라 등락을 보이는데 그침.

무역협상 낙관론: 백악관에서 3월 중순 플로리다에 있는 Mar-a-Lago 리조트에서 미-중 정상회담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옴. 특히 지난 8일(금) 백악관 관리가 3월 1일 무역협상 데드라인을 뒤로 연기할 수 있다고 언급 했다는 점을 감안 미국 정부는 협상 타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추정

무역협상 비관론: 이번 주 있을 무역협상에서 주목할 부분은 ‘지적 재산권’ 이라는 점. 이번 협상을 이끌고 있는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가 “미국은 기술, 혁신, 노하우 및 영업 비밀의 훌륭한 생산자이며, 그러한 것들이 보호되는 환경에서 활동해야 한다” 라고 지적. 그러나 중국 정부는 ‘제조 2025’ 정책을 악화 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반발 하고 있어 최종적인 합의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음.

이러한 낙관론과 비관론이 팽팽하게 이어지고 있으나, 미-중 무역협상 불확실성이 높아졌던 지난 주에 비해 낙관적인 전망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다만, 미 증시는 관망세가 짙은 가운데 차익실현 매물 출회되며 보험권 등락에 그침

S&P500 일종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종락률(%)	Close	D-1	지수종락률(%)	Close	D-1
KOSPI	2,180.73	+0.17	홍콩恒生	28,143.84	+0.71
KOSDAQ	733.47	+0.65	영국	7,129.11	+0.82
DOW	25,053.11	-0.21	독일	11,014.59	+0.99
NASDAQ	7,307.91	+0.13	프랑스	5,014.47	+1.06
S&P 500	2,709.80	+0.07	스페인	8,936.40	+0.90
상하이종합	2,653.90	+1.36	그리스	654.57	+0.72
일본	20,333.17	-2.01	이탈리아	19,586.56	+1.21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복사되거나 대여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제약업종 하락

테슬라(+2.30%)는 Canaccord Genuity가 투자의견(hold→buy) 및 목표주가(330달러→450달러) 상향 조정에 힘입어 상승 했다. 차량 렌탈 업체인 Avis Budget(+7.40%)은 골드만삭스가 투자의견(sell→buy) 및 목표주가(30달러→35달러)를 상향 조정하자 상승 했다. 경쟁업체인 Hertz(+8.99%)도 동반 상승 했다. 게임회사인 EA(-0.37%)는 BOA가 투자의견을 상향 조정(neutral→buy)한 데 힘입어 상승 하기도 했으나 매물 출회되며 하락 전환 했다. 경쟁회사인 블리자드(-7.60%)는 인력 감축 소식이 전해지자 하락 했다.

철도 운송회사인 Norfolk Southern(+3.20%)은 2021년까지 60% 성장을 목표로 하는 전략적 재무 계획을 발표한 이후 상승했다. 유니온 퍼시픽(+1.61%), CSX(+0.67%)도 동반 상승 했다. 보험회사인 Loews(-6.13%)는 부진한 실적 발표한 이후 하락 했다. 제약회사인 화이자(-1.30%)는 일본 자회사인 화이자 재팬이 고혈압치료제인 'Amvalo'에 대해 리콜을 결정하자 하락 했다. 이 여파로 제약회사 투자심리가 위축되며 머크(-1.04%), J&J(-0.30%), 일라이릴리(-1.32%)도 동반 하락 했다.

주요 ETF

ETF 종류	동락률	ETF 종류	동락률
원유시추업체 ETF(XOP)	+1.62%	대형 가치주 ETF(IVE)	+0.01%
에너지섹터 ETF(OIH)	+1.64%	중형 가치주 ETF(IWS)	+0.34%
소매업체 ETF(XRT)	+0.50%	소형 가치주 ETF(IWN)	+0.73%
금융섹터 ETF(XLF)	+0.31%	대형 성장주 ETF(VUG)	+0.07%
기술섹터 ETF(XLK)	-0.04%	중형 성장주 ETF(IWP)	+0.36%
소셜 미디어업체 ETF(SOCL)	+0.49%	소형 성장주 ETF(IWO)	+0.89%
인터넷업체 ETF(FDN)	-0.07%	배당주 ETF(DVY)	-0.10%
리츠업체 ETF(XLRE)	+0.26%	신흥국 고배당 ETF(DEM)	-0.74%
주택건설업체 ETF(XHB)	+0.51%	신흥국 저변동성 ETF(EEMV)	-0.53%
바이오섹터 ETF(IBB)	+0.50%	미국 국채 ETF(IEF)	-0.15%
헬스케어 ETF(XLV)	-0.12%	하이일드 ETF(JNK)	+0.03%
곡물 ETF(DBA)	-0.24%	물가연동채 ETF(TIP)	-0.20%
반도체 ETF(SMH)	+0.44%	Long/short ETF(BTAL)	-0.14%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465.97	+0.46%	-2.98%	+1.68%
소재	330.92	+0.19%	-1.14%	+1.06%
산업재	617.56	+0.55%	+0.78%	+8.10%
경기소비재	845.04	+0.18%	-0.76%	+2.02%
필수소비재	553.80	+0.21%	+0.73%	+4.44%
헬스케어	1,039.02	-0.13%	-0.73%	+2.14%
금융	426.60	+0.25%	-1.64%	+4.89%
IT	1,190.90	+0.00%	+0.17%	+6.76%
커뮤니케이션	150.78	-0.63%	-1.89%	+2.52%
유틸리티	282.14	-0.08%	+1.70%	+4.40%
부동산	214.98	+0.22%	+0.96%	+8.35%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한국 주식시장 전망

외국인 수급 주목

MSCI 한국 지수 ETF는 0.13% 상승했으나, MSCI 신흥 지수 ETF는 0.33% 하락했다. 야간선물은 외국인 순매수(+362 계약)에도 불구하고 0.10pt 하락한 282.550pt로 마감했다.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125.05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보합으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증시는 무역협상 결과를 기다리며 관망하는 경향을 보였다. 다만, 백악관에서 3월 1일 데드라인 연기와 3월 중순 미-중 정상회담 가능성을 점검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는 등 낙관론이 일부 유입된 점은 한국 증시에 긍정적이다. 다만, 관련 소식은 전일 한국 증시에 일부 영향을 줬다는 점을 감안 영향력은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달러화가 유로화와 파운드화 약세 여파로 여타환율에 대해 강세를 보인 점은 부담이다. 이는 외국인 수급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OECD 경기 선행지수가 유로존, 영국, 미국 위주로 전월 대비 0.13p 하향 조정된 99.2로 발표되는 등 경기 둔화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부정적이다.

주요 경제지표 결과

OECD 경기 선행지수 둔화 지속

OECD는 경기 선행지수가 전월 대비 0.13p 둔화된 99.20p로 발표했다. 특히 미국(-0.20p), 영국(-0.17p), 유로존(-0.14p)등이 하락을 주도했다. 한편, 한국은 0.01p 하락한 99.19p로 발표되었으며, 중국은 0.08p 상승한 98.45p로 발표되는 등 신흥국은 견조한 모습을 보였다.

상품 및 FX 시장 동향

국제유가는 무역협상에 대한 낙관론과 이집트 석유장관이 적정 유가에 대해 60~70 달러라고 언급한 점은 상승 요인이었으나, 대체로 관망속에 달러 강세 여파로 매물이 출회되며 하락 하는 경향을 보였다.

달러화는 유로화와 파운드화 약세 여파로 여타 환율에 대해 강세를 보였다. 유로화는 유로존 경기 둔화 우려감이 높아진 여파로 달러 대비 약세를 보였다. 파운드화는 영국의 2018 년 GDP 성장률이 6 년내 최저치인 1.4% 증가에 그친 점, 스코틀랜드 자치 정부가 “조만간 영국으로부터 독립해 EU 에 가입할 것” 이라고 발표한 여파로 달러 대비 약세를 보였다.

국채금리는 미-중 무역협상에 대한 낙관론이 유입되자 상승 했다. 특히 백악관 관리가 지난 8 일(금) 3 월 1 일 트레이드 마감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언급한 점이 영향을 줬다. 한편, 달러화가 1 월 최고치에 근접하는 등 달러 강세 영향도 금리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 다만, 섣다른 우려감이 재차 부각된 점은 상승폭 제한 요인이었다.

금은 달러 강세 여파로 하락 했다. 구리 및 비철금속은 달러 강세 여파로 하락 했다. 중국 상품선물 시장에서 철광석은 0.77%, 철근도 1.27% 하락 했다.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52.41	-0.59	-3.94	Dollar Index	97.057	+0.43	+1.26
브렌트유	61.51	-0.95	-1.60	EUR/USD	1.1276	-0.42	-1.42
금	1,311.90	-0.50	-0.56	USD/JPY	110.38	+0.59	+0.45
은	15,690	-0.75	-1.23	GBP/USD	1.2860	-0.65	-1.36
알루미늄	1,880.00	-0.05	-2.03	USD/CHF	1.0041	+0.36	+0.63
전기동	6,150.00	-0.97	-0.29	AUD/USD	0.7063	-0.35	-2.26
아연	2,644.00	-2.22	-5.61	USD/CAD	1.3304	+0.20	+1.48
옥수수	372.75	-0.40	-1.71	USD/BRL	3.7555	+0.63	+2.42
밀	518.25	+0.19	-1.43	USD/CNH	6.7983	+0.20	+0.29
대두	905.00	-1.04	-1.47	USD/KRW	1124.70	+0.07	+0.75
커피	103.30	-2.18	-4.92	USD/KRW NDF1M	1125.05	+0.16	+0.58

10 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10 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미국	2.654	+1.97	-6.99	스페인	1.238	+0.80	-0.40
한국	1.940	-2.20	-10.70	포르투갈	1.651	+0.30	-0.30
일본	-0.029	0.00	-2.00	그리스	3.996	-0.60	+11.20
독일	0.120	+3.30	-5.70	이탈리아	2.897	-5.80	+16.50